『사회통합 모니터링단 정책발굴(안)워크시트 - 숨연구소』

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해녀 물소중이 제작문화 보존 및 전승 지원 정책발굴(안) 워크 시트

항목	정책 발굴 방향 및 내용
단위별 분야	**1. 해당 분야:** 제주해녀 물소중이 제작 문화 보존(정책발굴) **2. 도출 안건:** 지역 별 제주해녀 물소중이 문화 전승 및 확산
정책발굴 이슈 관련 과제 범위 선정	**시급성:** 전승자 고령화, 기억단절, 기억에만 남아 재현이 불가능한 단계로 진입중, 1970년대 이후 제작·사용 완전 단절, 기록 부재로 인한 복원 기준 소실 위험, 전승 생태계(교육, 제작, 활용)부재, 향후 1~2년 이내에 기록, 재현, 교육체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기술기반 전승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음 **파급효과 :** 문화유산 보존파급(해녀 생활문화(잠수, 노동, 생애사)전체 기록 체계 화장, 지역공동체 파급(해녀 역할 회복), 교육·인재양성 파급(차별화), 관광·콘텐츠 파급(차별화), 경제·일자리 파급(지속성 확보), 특히 교육-기록-재현-활용 전 주기를 정책화함으로써 단발서 아닌 지속 가능한 전승 생태계 구축이 가능함 **소요자원:** 핵심전승/현장인력, 기록·연구운영인력, 공간, 장비, 재료, 예산자원, 시간자원, 단기간(6~12개월) 내 기록화와 교육체계를 구축하고, 장기적으로 지역공동체, 교육, 문화관광으로 확산 가능한 파급 과제임
정책 발굴 관련 환경분석	**SWOT 전략** **1. SO 전략 (강점+기회)** 1) 유네스코 제주해녀 문화의 상징성(국내외 인지도와 정당성 강함) - 물소중이의 역사적, 문화적 희소성(단절 위기 자체가 보존 필요성 강화) 2) 물소중이가 실용-예술로 발전해온 변천 가치 보유(스토링텔링 강점) - 해녀들이 과거부터 찾아다니며 배우고 종합, 기록해온 전승 태도 존재 **2. WO 전략 (약점+기회)** 1) 제작, 사용단절(1970년대 이후)로 실제 재현 가능한 인력 부족 - 전승자 고령화로 기술 기억의 소실 위험(시간이 가장 큰 문제임) - 표준매뉴얼, 패턴, 공정, 기록 부재(재현 기중이 불명확함) 2) 교육이 체험형으로만 흐르면 깊이 있는 기술전승 실패 가능성 높음 - 지속가능한 운영모델(수익, 거점역할)이 없으면 단발성 사업화 위험이 있음 **3. ST 전략 (강점+위협)** 1) 전승자가 사라지면 복원 자체가 불가능(긴급성) - 상업화가 과해질 경우 전통서 훼손, 비판 여론 발생 - 예산이 연단위로 끊기면 성과가 누적되지 않고 소멸 2) 관광 위주 운영시 가벼운 체험으로 전락(문화 가치 희석) - 전승자 중심 운영으로 정당성 강화, 해녀가 주인공인 전승교육으로 외부비판 차단

	4. WT 전략 (약점+위협) 1) 예산 단절 위험 대응(지자체예산+대학재정지원사업예산+전승기금 등 - 인력 부족 대응(교육강사양성, 지역 청연 참여 의무화 2) 단발성 행사화 방지(연간 운영계획, 정례전시, 성과공유로 루틴화
정책 과제 발굴	**제주해녀 물소중이 제작 보존을 위한 정책모델 제시** **1. 정책모델 제시** **1)물소중이 제작 방식의 다양성** 1. 물소중이는 지역별로도 다르고, 개인별로 다름 - 누구에게 배웠는지, 본인의 체형과 작업방식, 활동시 편의성에 대한 판단 2. 이런 요소들에 따라 자연스럽게 디자인이 변형되었고, 그 결과 똑같은 물소중이는 존재하지 않음 3. 이는 수작업 문화의 본질이며, 중요한 것은 하나의 정담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, 다양성을 인정하고, 수집하고, 전승하는 것이 중요함 4. 지역적 특징 - 제주시, 서쪽지역: 비교적 여유가 있어 장식과 멋을 더 한 디자인이 많음 - 동쪽지역: 생활여건이 어려워 실용성과 간편함을 중시, 기본적인 형태 위주 임 **2)현재 물소중이 제작 가능한 인력** 1. 정확한 숫자는 알기 어렵고, 다만 직접 제작하지는 않았더라고, 과거에 배운 경험과 기억을 가진 해녀들은 아직 남아 있음 2. 문제는 이 기술을 교육 형태로 전수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점임 3. 그러한 분들을 찾아 체계적으로 강사를 발굴한다면, 완전히 다절된 제주해녀 물소중이 문화는 다시 전승될 가능성이 배우큼 **3)물소중이 문화 확산을 위한 방법** 1.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교육 프로그램과 수업형태의 전승 활동(실제로 만들어 보고, 입고 활동해보는 경험이 중요함) 2. 정책적인 부분은 제주해녀 문화 보존의 관점에서 본다면 전통 의복 전승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반드시 필요한 정책임 3. 실제로 물소중이는 여름철에 고무옷(해녀물질옷)보다 더 시원하고 실용성 면에서도 재 평가될 여지가 있음 4. 제주해녀 물소중이는 단순한 물질 작업복이 아니라, 제주해녀의 역사이자 제주지역의 전통 문화임(사라지는 제주 문화의 가치를 공감) 5. 제주해녀 물소중가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, 기억-기술-생활이 결합된 살아 있는 문화이며, 의도적인 교육과 기록 없이는 완전히 살라 질 수 있음 6. 대학의 미래예측 시스템 활용을 통해 물소중이 영상, 도면을 기록화 하여 보존 7. 제주해녀 문화 전승관을 서부지역, 서귀포지역에 인프라를 구축하여 강사양성 및 전승 교육프로그램 확산(대학의 평생교육 제주해녀학과신설 및 학점인정제 도입) **4) 방안 제시** **1) 시급성** - 1970년대 이후 제작, 사용 단절로 자연전승이 불가능, 전승자가 고령화되어 기어기 사라지면 복원이 불가능, 도면/패턴/공정 표준 기록이 없어 원형 기준 자체가 소실될 위험성이 있음 **2) 실현가능성** - 완전한 제작자는 적어도 기억, 경험을 가진 해녀는 남아 있음, 장인과 협업하며

<table>
<tr><td></td><td>해녀의 기억을 실제 제작기술로 전환 가능, 대학은 교육 운영 역량이 있어 전승 수업 체계화 가능
3) 효과성
- 다양성을 수집, 기록에 무형문화의 핵심인 기술이 살아남음, 전승강사 양성으로 2차 전승자 구조가 생김, 해녀의 역할 회복, 문화직업(교육/체험/전시 운영)창출, 가벼운 체험이 아닌 진정성 있는 고급형 제주 콘텐츠로 확장</td></tr>
<tr><td>정책
실행 연차별
계획 수립</td><td>
<table>
<tr><th>연차</th><th>실행목표</th><th>주요 활동 내용</th></tr>
<tr><td>2026년</td><td>전승자 발굴, 기록화(영상, 도면, 매뉴얼 DB 구축
교육 재현</td><td>▸대학-지자체-관련기관 전승자 강사 인증제 도입
▸강사인증제 매뉴얼 구축
▸물소중이 교육 내용 제작</td></tr>
<tr><td>2027년</td><td>교육성과(초, 중, 심화과정 운영)
확산성과(전시, 체험 정례화, 찾아가는 교육 운영 등)
지속성(전승관 설립을 통한 문화보존 지속화)</td><td>▸물소중이 교육 초, 중, 심화과정 운영
▸성과확산을 위한 다양한 교육 운영
▸지속가능한 제주해녀 문화보존을 위한 제주해녀 문화 보존 전승관 설립을 통한 문화보존 지속화)</td></tr>
</table>
</td></tr>
<tr><td>성과관리 및 환류
(역할분담 등)</td><td>
<table>
<tr><th>성과지표</th><th>수행주체</th><th>모니터링</th></tr>
<tr><td>▸전승자 발굴 수
▸기록화(영상/도면/매뉴얼)
▸재현성과
▸교육성과/확산성과/지속성</td><td>▸대학
▸제주도해녀문화유산과
▸제주해녀협회
▸지역어촌계/해녀
▸유관기관(제주관광협회 등)</td><td>▸대학 옴부즈맨 활동
▸지역도민 모니터링 활동</td></tr>
</table>
</td></tr>
<tr><td>기대효과 및
확산 전략</td><td>기대효과
1. 문화유산 보존효과
▸물소중이 제작문화의 단절(1970년 이후)을 복원하여, 사라질 위기에 놓은 제주해녀 전통의복의 기술, 기억, 생활문화를 체계적으로 보존
▸지역별, 개인별로 달랐던 물소중이의 다양성을 기록, 수집, 유형화함으로써 수작업 전통문화의 본질을 전승할 수 있음. 영상, 도면, 매뉴얼로 기록화
2. 전승교육 및 인력양성 효과
▸전승자(해녀, 장인)의 지식과 경험을 교육과정으로 전환하여 초급-중급-심화-단계형 전승교육 체계를 구축
▸전승교육을 통해 2차 전승자를 양성함으로써, 개인 기억에 의존하던 전승을 제도기반의 교육 전승 구조로 전환 및 지역사회 내 상시 전승 학습 생태계 조성
3 지역 공동체 회복 및 역할 복원 효과
▸물소중이 제작을 담당했던 해녀들이 단절 이후 잃었던 역할을 회복하여, 해녀 공동체가 단순한 보존 대상이 아니라 전승 주체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음
▸전승 활동 과정에서 세대 간 교류가 촉진되고, 지역사회가 제주해녀문화의 가치를 재인식함으로써 공동체 기반 문화자산 관리체계 강화
확산 전략</td></tr>
</table>

	1. 기억을 가진 해녀를 중심으로 발굴하고 장인과 협업해 전승강사 양성과정 운영으로 교육의 확산 속도를 높이고 지속성 강화 **2.** 기록화 아카이브, 표준교육자료확산, 거점 교육관 설립, 찾아가는 순회교육확산 **3.** 전시, 체험의 질적 고급화 관광 확산, 지속가능 재원 구조 확산(자생운영모델)
참고문헌 /참고사항	**참고 문헌/ 자료** ▸제주해녀 물소중이 전승 장인 1명 현장 인터뷰 ▸제주해녀 과거, 현재, 미래(제주관광대학교 콘텐츠 개발 자료 등)